

해외연구소 설립 본격화

미국에 12개 기술연구소 진출 ... 일반분야 치중

국내 기업들의 해외 기술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.

그러나 국내기업들의 이같은 연구소 설립은 일본·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진출현황에 비해 아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연구분야도 자동차 컴퓨터 등 일반 산업기술분야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미국내 외국기술연구소 진출현황에 따르면, 국내기업들은 자동차 분야에서 3개, 컴퓨터 분야에서 4개,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1개, 반도체 부문에서 3개, 통신부문에서 1개 등 총 12개 기술연구소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미국내 외국 R&D연구소 현황								
산 업	일본	독일	영국	프랑스	한국	스위스	기타	합계
생 명 공 학	17	12	13	11	0	11	10	74
자 동 차	30	7	0	0	3	0	1	41
컴 퓨 터	20	3	0	0	4	0	0	27
소 프 트 웨 어	21	2	0	0	1	0	0	24
반 도 체	18	2	0	0	3	0	1	24
통 신	14	3	0	0	1	0	4	22
광 전 자	8	3	0	0	0	0	0	11
H D T V	7	1	0	1	0	0	0	9
의 료 장 비	1	2	0	0	0	0	0	3

그러나 선진국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분야는 물론 광전자, HDTV, 의료장비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는 아직 진출기업이 전무해 당장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일반산업 분야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이에비해 일본기업들은 생명공학 17개 등 총 136개의 기술연구소가 진출해 미국의 앞선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독일도 생명공학 12개 등 총 35개의 기술연구소가 미국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이밖에 영국·프랑스·스위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생명공학 분야에서만 각각 13개, 11개, 11개의 미국내 기술연구소를 설립,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1994/9/5>